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 가정의 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 : 2

7

2020  
vol. 238

춘천성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성시화이사회 조찬모임  
일시 : 5월 22일(금), 오전7시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선 각 교단과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며, 6월에 예정되었던 춘천성시선교대회를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0년 춘천성시신문 편집 위원회 모임

6월 26일(금), 오전 후평동

## CONTENTS

3-4 \_성시화운동

5 \_좋은 만남

6-7 \_특집 6.25전쟁 초기 춘천대첩과  
춘천지역 교회와 성도들 (1)

8-9 \_특집 코로나 이후

10-13 \_기관 교계소식

14-15 \_알림·후원 참여

16-17 \_성시 가시면류관

18-19 \_우리들 이야기

2020

# 성시화운동

## 성시화는 가정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병철목사(주향교회)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십여 년 전에 세계 선교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다. 전 세계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남은 과업(Unfinished task)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나누는 컨퍼런스였다. 컨퍼런스의 성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모임이었는데 한 발제자를 통해서 뜻밖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것은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빠른 길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적잖이 놀랐다. 세계 선교의 완성과 가정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때에 들었던 메시지를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 건강한 가정이 없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본거지가 바로 가정에 있다.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이 구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사회와 국가의 세포와 같은 가정이 이렇게 심오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정이 급속하게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이 해체되거나 파괴되면 교회와 사회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왜 가정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가? 그것은 가정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시대의 풍조 속에 감추어진 사단의 전략에 무지해서이기도 하다. 요한복음10:10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 도둑은 이미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가정을 무너뜨렸고, 지금도 여전히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승리의 복음만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고, 가정을 세워주는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확대·재생산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새 역사(役事)를 펼쳐가신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병든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시화의 지름길이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만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성시화는 가정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제자다움을 위한 실천 과제 세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 첫째, 황금 언어를 사용하자

황금 언어란 칭찬, 격려, 위로, 감사, 축복의 말이다.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치유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가족 간의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닌 따뜻한 격려, 칭찬, 위로, 감사와 축복의 말로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자주 허그(Hugs)하자

진정한 혁명은 품어주는 것이란 말이 있다.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를 안아주거나 자녀들을 안아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 가족 간의 건강한 스킨십이 가족을 화목하게 한다. 허그(Hugs)에는 격려와 지지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다. 가족 간에 자주 허그(Hugs)함으로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가족으로 세워가면 그 가족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것이다.

### 세째, 가족 문화를 만들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이 가장 먼저 실천돼야 할 곳은 바로 가족이다. 그래서 주 1회라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자.



# 기쁜 만남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기독교대학인회)

최병진 간사

ESF(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캠퍼스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복음주의적 초교파 학생 선교운동 단체입니다. 춘천에서는 주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춘천 담당자인 최병진 간사는 전주 ESF에서 4년 사역 후, 춘천 ESF에 파송 받아 사역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더 많이 훈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병진 간사는 “저는 대학생들을 만날 때가 가장 힘이 난답니다. 그들의 삶을 듣고 함께 삶을 공감하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지 함께 고민해 나가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합니다. 춘천의 캠퍼스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말합니다. 복음의 작은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역의 걸음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6.25전쟁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란 주제로 한국전쟁의 참혹함과 성도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특 집

# 6.25전쟁 초기 춘천대첩과 춘천지역 교회와 성도들 (1)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파괴된 춘천시(1952, 국립춘천박물관 제공)

## 6.25전쟁 발발과 춘천대첩

1950년 6월 25일, 세상이 잠들어 있는, 가랑비 내리는 새벽 3시 30분! 동해안 정동진, 동명동에 북한군 945육전대가 상륙하고 있었다. 이때 해안에서 경비하고 있는 전대육 순경이 6.26전쟁 첫 전사자가 되었다. 이어 새벽 4시 38선에서 일제히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은 각종 포와 자주포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남하하였다. 이어 동해안 삼척 임원진에는 북한군 766부대가 상륙하여 한반도 허리를 치고 있었다.

춘천 북쪽 30km 중동부전선에서는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모진교를 사이에 두고 동쪽 샘

밭 쪽에는 7연대 3대대 8중대장 이내홍 중위가, 북한군 2사단의 일제 포격이 중대장 참호를 명중해 부하들과 함께 산화하였다.

춘천 북동쪽 내평리에서는 내평지서장 노종해 경감을 비롯 내평지서원 10명과 김봉림 대한청년단원 등 11명이 북한군 2사단 4연대 남하를 1시간 동안 저지하다 북한군의 포격에 전원 장렬히 산화하였다. 이들은 국군 6사단이 춘천 남쪽에 저지선을 구축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국군의 소양강 방어선 구축 등 춘천 지구전투 승리의 초석이 됐다.

춘천대첩은 6.25전쟁 초기 단계에서 국군 6사단, 춘천시민, 학도병, 경찰(강원경찰국, 춘천경찰서, 강원경찰학교, 전투경찰 9대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군 단독 최초로 유일하게 승리를 이뤄낸 전투로서 다부동전투, 인천상륙작전 등과 함께 6.25전쟁 3대 대첩에 들어간다.

3일간 전투에서 병력과 장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6,800명을 사살하고 120명을 포로로 획득, 전차와 자주포 18대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 인해 북한이 2군단을 조공으로 하여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한 후 수원으로 진출시켜 국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수도권 일대의 국군을 전략적으로 포위하려는 전략을 좌절시켰던 것이다

## 춘천지역의 기독교인들의 피난과 예배당의 파괴 1

북한군의 1차침공(6.25전쟁 발발)에 이어 2차침공(1.4후퇴) 때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피난을 서둘러 떠났다. 춘천지방 선교사를 지냈던 스톱스(Charles D. Stokes, 목원대학교 설립자)의 증언이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대변해준다.

춘천이나 서울, 원주, 개성, 수원, 천안, 이천 같은 도시, 심지어 대전까지도 완전히 비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모두 떠난길에 올랐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색출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와 집을 떠나 피난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피신하고 교인들은 흩어졌기에 교회생활은 완전 중단된 형편이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엄청난 피난민 군중을 구제하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라고 기독교인들은 색출대상이었기 때문에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춘천뿐만 아니라 점령당한 지역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모두 숨거나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차침공 이후 수복되었을 때는 “처절하게 파괴되어 폐허가 된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우리 교회 몇 곳이 소실되었는데 우리 교인 작은 무리가 신실한 속장 집에서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선교사 스톱스가 박내철 목사를 통해 들은 말)라고 할 정도로 춘천 자체가 처절하게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중앙감리교회의 경우, 당시 박내철 담임 목사는 1951년 11월 2일에 부산에서 동부 중부 서부연합 연회 및 특별총회에서 춘천지방감리사 및 춘천중앙구역목사로 임명되었다. 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때까지 목사가 없어 “신실한 속장 집에서 집회를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0월 4일, 수복이 되었지만 이 기쁨도 잠시 11월 18일, 마석으로 피난을 해야 했다[마석미난]. 이때까지만 해도 요선동 예배당을 비롯하여 선교부 모든 시설은 북한군에게 징발되었고 모든 건물이 파괴되지 않았다.

이후 전개된 톱질전쟁(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다

시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을 톱질에 비유) 때 예배당 건물은 물론이고 봉의동에 있던 선교부 건물도 대부분 파괴되었고 옥천동에 있던 2층짜리 선교부 병원 건물도 폭격을 맞아 지붕과 2층이 날아가고 1층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에 남아있던 작은 무리가 속장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1.4후퇴 이후 춘천이 수복되자 춘천중앙교회는 반파된 옥천동 73번지 선교부병원 건물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다음 회 계속)



춘천중앙교회 선교사 사택과 교회



정숙현

(안디옥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를 함께 겪어내고 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모든 인류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이후, 어떤 삶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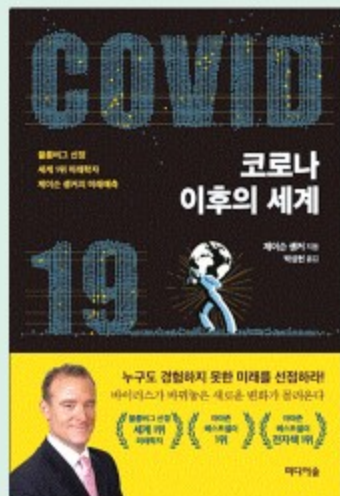
이 질문에 대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분야별로 대책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제이슨 생커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사회는 미래를 내다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절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거도 그러한 위기와 비극 속에서도 그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재택근무 확산을 앞당긴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교육과 투자 및 정책을 통해 공중 보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고, 그런 변화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전략을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일자리, 교육, 에너지, 금융,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부동산과 농업, 공급망, 미디어, 국제관계, 국가 안보, 정치, 리더십, 여행과 레저, ESG와 지속가능성, 스타트업, 불황 등의 미래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에 닥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대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제이슨 생커, 박성현 옮김, 『코로나 이후의 세계』, 미디어숲, 2020.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에 강동 온누리교회 노치형 목사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온누리 감성매거진 2020.5.14. 온누리교회이야기 <https://blog.naver.com/woodstock15/221962071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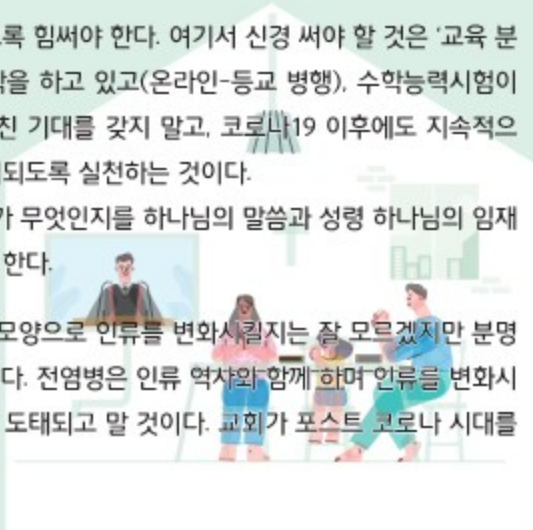
크리스천으로서 실제 삶의 문제들에서 취해야 할 몇 가지 신앙적 태도를 생각해보면, 첫째, (요13:34-“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이웃 사랑)’에 대한 태도를 신경 써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실제 개인과 가정 및 작은 공동체들의 생존과 생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의 영과 마음과 생활, 환경과 상황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세심하게 살펴보며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건강·보건 분야(예배 방식)’에 대한 태도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감염 전파 속도가 통제되고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기보다는 장기화한다고 보고 ‘생활방역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도들 역시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고, 생활방역지침을 지키며, 성도들 각 개인은 예배당예배에 참석을 하든지, 온라인예배로 참석하든지 지혜롭게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개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셋째,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것은 ‘교육 분야(신앙 교육)’에 대한 태도다. 대한민국은 아직 온라인 개학을 하고 있고(온라인·등교 병행),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 가정은 조급하고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신앙훈련과 교육을 가정과 삶 속에서 일치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생활의 다른 분야에 대한 크리스천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인류를 변화시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하며 인류를 변화시켜 왔다.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고 건강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LMTC(평신도선교훈련) 제11기 수료식 및 제12기 입학식 |

코로나19 재난 중에서도 춘천LMTC 제11기 수료식 및 제12기 입학식이 4월 25일(토) 오후 5시, 춘천온누리교회(그레이스채플)에서 있었다. 제12기 LMTC훈련은 5월14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춘천온누리교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 춘천온누리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 |

1990년 5월 5일, 후평 3동 2층 건물에서 시작된 온누리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5월 24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오후 예배(1시 30분)를 드렸다. 이날 말씀은 춘천온누리교회 개척 첫째 1호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 받은 박상배 선교사가 전하였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특송과 아바 몸찬양팀의 축하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CEO가 쏜다, Arise 춘천 |

5월 16일(토) 오전 10시 제자들침례교회에서 CEO 특강과 토크가 있었다. 강사는 이수정(이포넷 대표), 최종원(새길과세일 대표), 박홍규(토브정신건강연구소 대표)였다.



## 안마(안전거리 마스크) 콘서트 |

5월 27일(수) 오후1시, 춘천도청 앞에서 음악과 마스크를 나누주는 안마콘서트가 있었다. 개그우먼 김정, 이견명, 정찬희, 김훈희 등이 출연하였다.

**사랑은 beautiful.**  
마지막 연애도가 언제쯤 나오?

"난요, 장미빛 꿈에  
속임수 들어 싶어요!"

**5.21**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을 맞아 연애 전문가의 특별한 강의를  
부부 상담(심리상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초대합니다.  
2020년 5월 21일(목) 19:00 ~ 21:00  
(공연의 특성상 상연권 없음)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5월 14일 10시,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보건복지부의 표준화된 부모교육 지원사업인 '공통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공동부모교육 강사를 위촉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부부의 날을 맞아 관내 영유아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 30쌍(총 60명)을 초대하여 5월 21일 오후 7시부터 소극장 '연극 바보들'에서 '뷰티풀 라이프'를 무료로 관람하게 했다.



###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제21대 회장 이수형 목사 취임 |

이수형 목사 “강원도와 함께 다음 세대 사역과 통일한국 초석 이룰 것”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2020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감사예배가 지난 5월 22일 순복음춘천교회 (담임 이수형 목사)에서 있었다. 총회에서 제21대 회장에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사무총장에 유화종 목사(원주선교제일교회)가 선출되었다. 도내 지역별 기독교연합회회장들은 강원도와 함께하는 한국전쟁 70주년 6.25 행사인 강원도 조찬기도회와 평화연합예배, 강기총 세미나, 강원 DMZ 심포지엄, 평화통일기원 강원도 문화축전 등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세성협(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17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 개최 |

성령역사를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받는 제17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시상식을 지난 6월 4일(목) 오후 4시30분 한국기독교성령센터 황희자홀에서 개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 부문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 교육자 부문 서철원 목사(개신대학교, 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 사회봉사 부문 윤요셉 목사(서울역 쪽방촌 모리아교회 담임)가 수상했다.



### 예배회복을 위한 30일 기도학교

우두감리교회는(안창원 목사) 6월 9일(화)부터 7월 8일(수)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예배회복을 위한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 홀리클럽 자연보호 활동

홀리클럽은 6월 8일 홀리클럽 24주년 창립일 오전, G-1방송국 일대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 홀리클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 확산되길 기도한다.



###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6월 15일(월) 저녁 7시 30분, 100차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주향교회에서 있었다. 강사는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였다.



### 밝은빛 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 강원신학연구원을 운영하고 생명수 교회를 섬기던 용석만 목사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288-9 밝은빛교회(김순재목사)로 강원신학교를 이전하고 신학생을 모집 중이다.

그동안 밝은빛교회를 섬겨오시던 김순재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으로 용석만 목사가 담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사명인 신학교 운영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감당하고자 한다.(신학생 수시모집 033-243-5354)



### 하늘뜻교회 개척예배 (후만로 65. 2층) |

우여곡절 끝에 개척의 부르심에 순종한 유영호 목사님과 가족은 춘천에 온 지 18개월 만에 6월 20일(토) 11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늘뜻교회를 기도와 격려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예사랑 침례교회(홍요셉 목사) |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다.

일시 : 7월 19일(주) 오전 11시

장소 : 예사랑교회



### 꿈자람 나눔터 |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의 비영리 법인인 동부디아코니아는 올 3월에 수탁 받은 퇴계 꿈자람 나눔터 제막식 및 개관예배를 지난 5월 29일 진행하였다.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는 5월 3일 '창립 81주년 기념예배', 5월 31일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주관 농어촌주일기념 헌신예배', 6월 7일 '2020 환경주일 디아코니아 예배', 6월 21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예배 및 6.25 참전용사 초청주일예배'를 드렸다.



### 제5회 6.25 구국기도회 개최 |

춘천장로교연합회는 6월 24일(수) 저녁 7시 30분,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제5회 6.25 구국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변충구 목사(세계로교회 원로목사)가 감사로 말씀을 전하였다.



### 2020 청정호반 도시 춘천을 위한 환경정화 캠페인(2017년부터 시작) |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춘천 공지천 및 의암공원, 만천천, 춘천 시내 등 4개 지역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청정 호반 도시인 춘천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며, 이웃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이웃 사랑 실천이었다.



### 6.25 남북복음통일기도성회 |

6월 25일(목) 오전 10시, 철원군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철원노동당사 앞에서 6.25 남북복음통일기도성회가 있었다. 김장환 목사(극동방송이시장)가 말씀을 전했으며 오의석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하였다.



### 6.25전쟁 70년 특별집회 및 춘천 대첩 현장 기도회 |

"내 손에서 하나되게 하리라!(겔37:19)"는 주제로 6월 25일(목) 오후 4시부터 6시는 춘천 대첩 현장 탐방, 오후 7시부터 9시 30분은 케네스 배 선교사를 초청하여 특별집회를 주향교회에서 가졌다.

## 6.25 전쟁 70주년 제1회 대한민국 강원도조찬기도회 개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복음통일기도성회 제1회 대한민국 강원도조찬기도회가 6월 25일 오전 7시 40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철원제일감리교회 복원 기념예배당에서 열렸다.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드러진 이 예배는 한국전쟁 70년 연합예배 추진위원회(대표회장 정성진 목사),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수형 목사),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함께 기도하며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넘어 복음통일을 위한 첫 강원도조찬기도회였다.



조찬기도회 장소인 철원제일감리교회는 1905년 월번 선교사를 통하여 개척 설립되었고,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한국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순교자가 나온 교회(강종근 목사)이며, 공산치하에서 기독교청년학생들이 반공투쟁을 활발히 벌인 곳이다. 강원도의 기독교 성지인 역사적인 현장 철원제일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강원도조찬기도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잘 마쳤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우리 강원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도로 지난 70년 동안 전쟁과 분단, 분노와 원한, 적개심의 땅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고자 한다. 분단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평화를 외치고자 한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중심으로 ‘평화의 아침을 주소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평화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사모해

야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에이레네’를 누리기 위해 평화를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평화통일의 열차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전했다.

강원도와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의 회개와 연합으로 민족의 시대적 사명인 한반도 복음통일에 기여하고, 한반도가 분쟁과 대결이 아닌 용서, 화해, 사랑으로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2020년 하반기에 한국교회 복음통일기도성회 평화연합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 알려드립니다

### +장로연합회

비전교회 후원 초천기도회 4차  
일시: 7월 6일(월) 오전7:00  
장소: 마평장로교회(임승호담임목사)

### +목회자연합회

- 광복절 연합예배(예정)  
일시: 8월 12일(수) 오후7:30  
장소: 소양성결교회  
강사: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 -원로목회자 초청 위로회(예정)

일시: 8월 14일(금) 오전 11:30

### +춘천성시화운동

(모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사의 정기 기도회

일시: 7월 14일(화) 오전7: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 - 임원 정기 기도회

일시: 8월 11일(화) 오전7: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 - 성사전교대회

일자: 9월 6일(주일)~12일(토)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 +춘천출리클럽

- 춘천성시준비기도모임  
일시: 8월 31(월)~9월 4일(금) 오전 6: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 남/여 신학생·편입생 모집



### ■ 모집과정

| 과정  | 학제            | 지원자격                                                                                                                                            |
|-----|---------------|-------------------------------------------------------------------------------------------------------------------------------------------------|
| 신학부 | (주)02년<br>8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례를 받은 자</li> <li>■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li> <li>■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li> </ul> |
| 연구원 | (주)02년<br>4학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li> <li>■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li> </ul>                                  |

■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 제도가 있습니다.

■ **특전** - 방학 없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음

■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수료 후 본교단에서 목사고시 후 안수 받을 수 있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원신학 춘천캠퍼스

**수시모집**

춘천시 동면 만천리288-9 밝은빛교회

**033)243-5354**



**자동차의 모든 것**  
**주영자동차용품에서 해결하세요!**

360°어라운드뷰시스템, 네비, 블랙박스,  
선팅, 어린이안전장치, 자동문, 언더코팅



**033-253-9106**

춘천시 보안길 140 (동광오거리)



**교회 사무기기 전문업체**

**컬러복사기 판매 및 임대 전문**

디지털칼라복합기,  
인쇄기, 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각종 전산소모품



미래 아이엔티 033-253-3211

대표 권오선(권사) 010-5367-3210



## 가시면류관

김용배 장로  
(소양성결교회)



꽃이 예쁜 꽃기린 나무는  
무슨 이유로 서글픈 꽃이름을 가졌는가

인간의 무의식과 잔인함이  
꽃기린 가시줄기로 면류관을 만들었네  
더 깊이 갈기갈기 헤집는 괴로움을  
뺏속까지 박히라고 열기설기 가시관을 만들었네  
돌로 된 머리라도 피를 흘렸을 가시면류관  
벌거벗은 예수와 산딸나무 십자가는 하나가 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인 부활을 잉태하셨네

운다고 아픔이 삭혀질까  
참는다고 그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두 번 죽은들 이보다 더할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가시면류관이라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홍포에 가려진 예수의 몸엔 채찍질로 마른 피가 흐르고  
비웃음과 조롱의 함성은 성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잠시 인간이 되시었네  
눈감은 예수는 아무 말이 없었네  
이미 눈물도 절규도 말라버리고  
파르라니 입술 사이로 떨어지는 기도소리가 새어 나오네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가 필립은 우리의  
희망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사 53:5



골고다 사형장 가는 길에 무슨 길이 있으랴  
십자가를 지고  
끌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이마의 땀방울과 핏물이 비아도로로사를 만들었네

해지기 전 바위산 골고다에 구멍을 뚫고  
머리의 가시관으로도 모자라 생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망치소리는  
차마 죽음을 넘어선 전주곡이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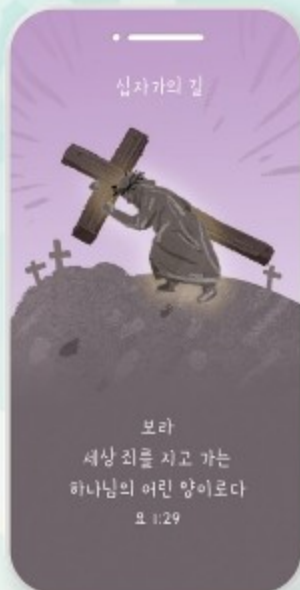
천년이 두 번이나 지났어도  
깊이 박힌 가시관을 벗겨 주는 이 없어  
지금도 쓰고 계실 꽃기린 가시면류관

언제 다시 오시려나 알 수는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뵈오면  
어찌 내 멀쩡한 눈으로  
주님의 가시관을 바라볼 수 있으랴  
스스로 잃어버린 부활절 아침에  
빈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로 그리네

꽃기린 가시면류관.

잃어버린 2020년 부활절 아침에

주) '파르하니' 란 파랗다 못해 하얗게 된



## 뒤엎겨 있던 신발들

늘 그랬던 것 같다.

집 현관문을 들어서면 순간 뒤엎겨 있는 신발들을 보고 나는 또 잔소리를 해댔다. 잔소리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은 순간 분주해야만 했다. 잔잔한 곳에 물탕 튀기듯 늘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젠 현관문을 들어서도 그 뒤엎겨 있는 신발들은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있다 간 빈 자리의 결과이다.

신발들이 뒤엎겨 있던 때가 행복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리움과 아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만 이런 일을 나보다 먼저 겪게 되어서인지 나를 자꾸 밖으로 불러내는 친구도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도 쓸쓸했던 것이다.

오늘 저녁, 집사람과 같이 동네 독방 길을 걸었다. 애들, 결혼들 하면 더 멀어지겠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었던 게 었 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세월은 그렇게 흐른다.

## 주님이 하실 일을 노래하는

달빛이 비춰지는 한탄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큰 바위에 올라 앉아 조국강산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던 신학생 시절을 생각하며 잠시 울컥했다.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기도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바위 저 바위에서 서로 교감이나 하는 듯 메아리처럼 들려오던 기도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던 이 나라 교회들이 허물과 죄로 세상에 희망 대신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간다.

그럼에도 오늘도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징계도 있고 수치도 감추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하실 내일이 있기에 오늘도 그 중보자들을 모으신다.

예배 회복을 위하여 애통해 할 자와 자식을 위하여 울 어머니들과 매일 순간마다 마귀에게 영혼 빼앗기는 그 원통함을 위하여 옷을 찢는 그런 자들을 모으신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다시 올려 퍼지게 할 그 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 들기 시작한다면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올 것만 같다.



김승범 목사  
(춘천제일성결교회)

##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단과 시련  
을 이기냄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관형 권사  
춘천한길교회  
자연유치원장  
전)강원도기독교미술인  
협회장



##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를 간증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편집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문자(010-9698-2993)메일(holycc1972@daum.net)



##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TEL 033)256-1260 FAX 257-1260

HP 010-9698-2993

자스민은 각종 모임, 회식, 상견례 등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친절함 서비스, 최고의 맛으로  
여러분의 외식문화를 한 차원 높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스민

매 주일은 휴무입니다

월-토 : 11:00-22:00

Break Time : 15:00-17:00(평일)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Tel : 033-241-5453

춘천시 우묵길74번길 14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시민에게

9.6-12

회복 · 연합 사명으로

---

제48주년 2020 춘천성시선교대회  
2020년 9월 6일(주일)-12일(토)

---

▶ 4분 성시

강원CBS 춘천성시화운동방송  
방송일시 : 매주 화요일 밤9:30